

올해 돼지열병 7건 발생...정부, 접경지 10개 시·군 방역 강화

중수분, 멧돼지 전담 수색인원 투입 탐지견·열화상 드론 이용 집중 수색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양돈농장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접경 지역 10개 시·군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강화·포천·파주·연천·김포·철원·화천·고성·양구·인제 등에 있는 363개 농장이 대상이다. 중수분에 따르면 올해 1~3월 양돈농장에서 ASF가 총 7건 발생했는데 모두 경기·강원지역이었다.

이에 따라 중수분은 봄철 영농활동, 입산객 증가, 멧돼지 수 급증 등에 따른 사육 돼

지의 ASF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발생 우려가 큰 접경지역 등 10개 시·군을 중심으로 야생 멧돼지 개체 수 저감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을 위해 군부대와 협조해 민통선 내 전담 수색 인원을 추가 투입한다. 야생 멧돼지 폐사체를 집중 수색·제거하고 폐사체 탐지견(2개 팀)을 통한 수색도 병행한다. 멧돼지 서식밀도를 1.05마리/㎢(2022년 말 기준)에서 0.7마리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야생 멧돼지의 포획을 위해 민통선 내·외부에서는 열화상 드론 촬영·위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포획단에 제공하고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발견되지 않은 지역에는 상설 포획단을 시·군당 10명 이상 투입해 멧돼지 포획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행안부와 합동으로 중앙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해당 시·군의 방역 관리에 나선다. 또 검역본부와 인천·경기·강원 지자체에서도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양돈농가의 방역관리 실태 및 농장 2단계 소독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직접 점검한다. 만약 위반 사항이 발생 시 과태료 처분 또는 고발 조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접경지역 등 10개 시·군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ASF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선제적 방역 조치를 위해 정기 검사 건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야생 멧돼지의 이동 가능성이 있는 민통선 내의 도로에 대해 소독 구간을 16개에서 50개로 확대해 오염원을 선제적으로 소독·제거한다. 10개 시·군 내 가축·분뇨 운송 등 축산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는 소독 차량 3대를 별도로 배치해 집중 소독한다.

민통선 통제초소를 통과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멧돼지 폐사체 수색을 통해 ASF 양성 개체가 발견된 인근 지역·도로에 대해서도 방역 차량을 이용해 집중 소독한다.

농식품부는 방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 소독 자원을 확대해 10개 시·군 양돈농장과 축산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주변 도로 소독

을 지원하고 한돈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일 2회 이상 농장 내·외부 소독도 점검한다.

접경지역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야생 멧돼지의 ASF 확산 차단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생 경계 시·남부 시·군에 소독 차량을 기존 40대에서 60대로 확대하고 양돈농장 진출입로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양돈농장과 야생 멧돼지에서의 ASF 발생 상황을 고려할 때 1년 중 언제라도 ASF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방역 주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양돈 농가들은 방역·소독 설비를 정비하고 농장·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이슬기자



현화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열 후손들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열 후손들이 11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열 추념식에서 현화를 하고 있다.

5년간 광주지역 등산사고 553건...4월에만 58건

광주시 "생활 속 안전사고 주의" 강조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4월에 등산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등산사고는 모두 553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3명·부상 401명·실종 1명이다.

이중 58건이 4월에 발생, 연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4월 등산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는 부상 42명이다.

사고원인으로는 개인질환과 실족·추락이 70%·조난 12%였다.

광주시는 지정된 등산로로 자신의 체력에

맞춰 안전하게 산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완연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4월에는 고비사막과 내골골 등 중국 북동 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 계절풍을 타고 유입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 지역 황사일수는 총 27일이었다. 이중 봄철이 17일로 가장 많았다. 특히 4월에만 8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사 예보가 있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황사나 미세먼지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 등을 닫고 물청소·공기정화기 등을 이용,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야 한다. 다만 이산화탄소 등 실내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최소한의 환기는 필요하다.

실외 활동은 가급적 줄이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와 긴 소매 옷을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신동하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따뜻한 날씨와 봄의 정취를 느끼느라 자칫 안전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다"며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평소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이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슬비기자

여장 행세하며 남성 접근해 돈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 구속

검거 당시에도 여장 차림으로 붙잡혀

여성 행세를 하며 고령의 남성에게 접근해 현금과 카드를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4월 50대 남성 A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인 A씨는 지난달 4일 자정 무렵 천안시 성정동 천안역 인근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고령의 남성에게 접근했다.

남성과 모텔에 함께 투숙하던 A씨는 남성이 샤워를 하는 틈을 노려 남성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과 카드를 훔쳐 달아났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남성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내용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으며 CCTV 영상, 주변 탐문수사 등을 토대로 50대 초반의 남성이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도피 중에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도주하며,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여러차례 무전

취식 범행까지 저지른 혐의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대전과 전북 익산 등지에서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현금 등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배 중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는 검거 당시에도 긴 머리 등 여장 차림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같은 범죄로 수배 중인데도 대법하게 계속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6일 구속영장을 발부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